

보도시점 2026. 6. 10.(수) 배포시점 배포 2026. 6. 10.(수) 10:00

“인공지능 활용 방송콘텐츠에 투자하세요”

- ‘제20회 부산콘텐츠마켓’ 참여해 ‘아시아 투자설명회’ 개최...23편 선보여 -

10일 열리는 아시아 최대 콘텐츠 거래 플랫폼 ‘제20회 부산콘텐츠마켓(BCM)’에서 국내 방송콘텐츠 기획안에 대한 투자설명회가 개최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원장 이상훈)은 10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제20회 부산콘텐츠마켓(BCM)’에 참여해 국내 벤처캐피털(VC), 아시아 주요 방송사 및 제작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아시아 투자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내 방송미디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규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부산콘텐츠마켓과 연계, 국내·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케이(K)-콘텐츠 투자 유치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다.

‘제20회 부산콘텐츠마켓(BCM)’은 10~12일 부산 벡스코에서 ‘케이(K)-콘텐츠가 세계와 만나는 곳 부산’을 주제로 55개국, 700개 사, 2천300여 명의 투자자와 기업 등이 참가한 가운데 2억 3천만 달러의 거래 실적을 목표로 열린다.

이 곳에서 아시아 방송사·제작사와 국내 투자사들을 대상으로 드라마, 예능 등 국내 방송 기획안 등의 발표를 통해 새로운 방송 지식재산(IP)을 발굴하고자 한다고 방미통위는 설명했다.

첫째 날인 10일에는 ‘인공지능 활용 콘텐츠 투자설명회’를 통해 최신 기술 흐름을 반영한 인공지능 활용 콘텐츠 기획안 ‘노(老)봇 관계의 재구성’ 등 15편이, 11일에는 ‘국제 공동제작 투자설명회’를 통해 아시아 방송사 및 제작사가 공동제작을 추진하는 기획안 ‘한중일 라면전쟁’ 등 8편이 소개된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는 케이(K)-콘텐츠 미디어 전략펀드 운용사들이 참여해 실질적인 투자 유치 가능성을 높일 예정이며, 투자설명회 참가 기획안에 대한 투자 상담 및 아시아 방송미디어 제작 인력 간 교류, 인적 관계망(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아시아 방송인의 밤’ 행사도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 투자사들의 심사 과정을 통해 인공지능 활용 콘텐츠 8편, 국제 공동제작 기획안 4편 등 최종 선정된 12편에 대해서는 오는 10월까지 전문 상담(컨설팅) 등 고도화 과정을 지원한다.

11월 개최 예정인 ‘차세대미디어 페스티벌’과 연계해 투자설명회와 시상식을 개최하는 등 작품을 선보임으로써 후속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방미통위 천지현 방송미디어진흥국장은 “앞으로도 국내외 투자 유치 기회 확대 및 국제 공동제작 활성화 지원 등을 통해 국내 방송콘텐츠가 글로벌 시장에 보다 폭넓게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담당 부서	방송미디어진흥국 디지털방송미디어정책과	책임자	과 장	함형철 (02-2110-1620)
		담당자	사무관	유인설 (02-2110-1636)

